

## 근대 장애예술가의 조망과 의의\*

정창권\*\*

<차례>

1. 장애와 예술
2. 근대 장애예술가의 발굴과 소개
  - 1) 근대 장애인인 삶과 사회적 처지
  - 2) 근대 장애예술가의 분야별 고찰
3. 맺음말: 근대 장애예술가의 특징과 의의

### <국문초록>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술가 가운데에는 장애를 가진 인물들이 의외로 많았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장애예술가들이 역사적으로 상당히 많았다. 조선시대엔 문인, 화가, 음악 등 많은 장애예술가들이 계속해서 출현했고, 근대에도 필자가 발굴해낸 인물만 해도 무려 13명 가량이나 되었다. 특히 근대 장애예술가 중에는 유독 그 이름 앞에 ‘최초’나 ‘최고’라는 수식어가 붙은 경우가 많았다. 그만큼 당시 장애예술가의 활동이 선구적이고 뛰어났던 것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근대 장애예술가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된 적은 전혀 없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그들의 출현배경, 즉 근대 장애인인 삶과 사회적 처지를 간략히 파악한 뒤, 필자가 새롭게 발굴해낸 근대 장애예술가들을 작가와 화가, 음악가 등으로 나누어 차례대로 살펴보았다. 특히 본고에서는 근대 장애예술가를 최대한 발굴하여 그들의 예술가로서의 성장과정과 예술적 성취를 소개했다. 그런 다음 끝으로 근대 장애예술가의 특징과 의의를 종합적으로 지적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했다.

\* 이 논문은 2014년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진흥사업단)을 통해 창의연구지원 시범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AKS-2014-ORS-1120006).

\*\* 고려대학교 문화창의학부 초빙교수

근대 장애예술가들은 어린 시절에 입은 장애에도 불구하고 피나는 노력으로 문학, 미술, 음악 등 다양한 예술 분야로 진출했으며, 이후 암울한 시대상황 속에서 예술 활동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사회적 자아를 실현코자 했다.

장애예술가, 장애 작가, 장애 화가, 장애 음악가

## 1. 장애와 예술

역사적으로 장애인들은 문학, 미술, 음악 등 다양한 예술 분야에 진출하여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다. 유럽 최고의 서사시인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를 지은 것으로 알려진 고대 그리스의 음유시인 호메로스는 시각장애인이었고, 이솝우화를 지은 그리스의 우화작가 이솝은 등이 굽은 척추장애인이었으며, 『돈키호테』를 지은 스페인의 극작가이자 시인인 세르반테스는 레판토 해전에서 팔에 총을 맞고 부상당한 지체장애인이었다. 또 수많은 명곡을 남긴 악성(樂聖) 베토벤은 귀가 멀어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이었고, 20세기 최고의 화가 반 고흐는 환각, 망상 등 여러 가지 정신분열증을 앓았을 뿐 아니라 고갱과 함께 지내다 심한 언쟁 후 자신의 귀를 자르기도 했다.<sup>1)</sup>

물론 우리나라에도 장애예술가들이 역사적으로 상당히 많이 존재했다. 예컨대 조선시대만 해도 문인, 화가, 음악가 등 많은 장애예술가들이 계속해서 출현했다. 문인으로는 숙종대 척추장애 학자이자 문필가였던 조성기, 현종~영조대의 시각장애 시인 부부였던 김성침과 홍씨, 영·정조대 시각·언어장애 천민시인이었던 이단전, 정조대 지체장애 시인이자 아동

1) 정창권, 『세상에 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문학동네, 2005, 165쪽 참조.

교육자, 출판인이었던 장훈, 역시 정조대 시각·지체장애 시인이자 풍속사가였던 강이천 등을 들 수 있다. 화가로는 명종~인조대 지체장애 목축화가였던 이정, 영조대 시각장애 직업화가였던 최북, 정조~헌종대 언어장애 서예가였던 조광진을 들 수 있다. 또 음악가는 대부분 시각장애인이었는데, 세종대 현금의 대가였던 이반, 성종대 가야금의 대가였던 정범과 김복산, 역시 성종대 가야금의 대가이자 장악원 전악이었던 이마지, 영조대 비파의 명인이었던 백성휘, 18세기 후반 가야금의 대가였던 윤동형 등을 들 수 있다.<sup>2)</sup>

마찬가지 개화기에서 일제강점기에 이르는 근대에도 상당히 많은 장애인 예술가들이 존재했다. 현재까지 필자가 발굴한 인물만 해도 문학, 미술, 음악 등의 분야에서 무려 13명 가량이 존재했다. 특히 근대 장애인예술가 중에는 유독 그 이름 앞에 ‘최초’나 ‘최고’라는 수식어가 붙은 경우가 많다. 그만큼 당시 장애인예술가의 활동이 선구적이고 뛰어났던 것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그들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근대 문학과 미술, 음악 등의 분야에서 몇몇 유명한 인물들을 개별적으로 검토한 적은 있었으나, 본고에서처럼 장애인 예술가의 관점에서 그들의 존재를 새롭게 발굴하여 종합적으로 연구한 적은 거의 없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우선 그들의 출현배경, 즉 근대 장애인의 삶과 사회적 처지를 간략히 파악한 뒤, 필자가 새롭게 발굴해낸 근대 장애인예술가들을 작가와 화가, 음악가 등으로 나누어 차례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본고는 근대 장애인예술가에 대해 처음으로 연구를 시도하는 것이므로 관련 인물들을 최대한 많이 발굴해낸 뒤, 그들의 생애와 업적을 개괄적이 되 충실히 소개하는 형식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그런 다음 끝으로

2) 정창권, 「조선시대 장애인 예술가의 존재양상」, 『한국학연구』 38,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1, 428~453쪽.

근대 장애예술가의 특징과 의의를 종합적으로 지적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sup>3)</sup>

## 2. 근대 장애예술가의 발굴과 소개

### 1) 근대 장애인의 삶과 사회적 처지

우선 근대 장애예술가의 출현배경부터 간략히 살펴보자. 개화기에서 일제강점기에 이르는 근대는 한국 장애인사에 있어서 가장 큰 암흑기였다. 이 시기에 이르러 장애 원인은 훨씬 다양해지고, 그 수는 급격히 늘어났다. 특히 일제강점기에는 극심한 생활고와 태형 및 고문으로 각종의 장애를 입었을 뿐 아니라, 자본주의 산업사회가 도래하면서 여러 가지 산업 재해와 의료사고, 교통사고로 장애를 입기도 했다. 그에 따라 장애인 수도 날이 갈수록 증가했는데, 대표적으로 시각장애인의 경우 1921년엔 8,792명이었으나 1927년엔 11,205명으로 급증했으며, 1938년엔 12,314명으로 증가했다.<sup>4)</sup> 청각·언어장애인의 수도 1921년엔 6,847명이었으나 1927년엔 10,300명으로 크게 늘어났다.<sup>5)</sup>

하지만 근대의 장애인 복지정책은 거의 시행되지 않았다. 조선시대만 해도 장애인 복지정책은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었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상당히 개방적이었다. 그리하여 조선시대엔 장애인

---

3) 본고는 근대 장애예술가의 세계를 연구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것으로, 그들 각각의 생애와 작품에 대한 보다 정치하고 깊이 있는 분석은 후속 논문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

4) 정창권, 『신문자료로 보는 일제강점기 장애인 생활상』, 『JKC』 32집, 한국어문학회 학술포럼, 2016, 124~125쪽.

5) 위의 논문, 127~128쪽.

왕족과 관료층, 예술가가 계속 출현하여 다양한 역사적 업적을 이루었다.<sup>6)</sup> 하지만 근대에는 국가의 복지정책도 거의 시행되지 않았을 뿐더러 장애인을 위한 직업이나 관직도 급속히 사라져갔고, 그들의 관직참여도 더 이상 불가능해지고 말았다. 근대, 특히 일제강점기 장애인 복지정책으로는 제생원 맹아부, 총독부의원 정신병동, 소록도 갱생원 등을 들 수 있는데, 이것들은 진정한 의미의 장애인 복지가 아닌 관리와 통제의 차원에서, 즉 원활한 식민통치를 위한 지배수단에 불과했다.<sup>7)</sup>

또한 근대에는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매우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그것은 우선 장애에 대한 용어의 변화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다. 조선시대만 해도 장애인은 ‘잔질’, ‘독질’, ‘폐질’, ‘병신’ 등처럼 몸에 병이 있는 사람, 다시 말해 몸이 아픈 사람으로 보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장애인을 불쌍하고 측은하게 여기면서 어떻게든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근대엔 ‘불구자’, 즉 뭔가를 갖추지 못한 사람, 즉 기능이 결여된 사람으로 간주하며 더 이상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으로 여겼다.<sup>8)</sup> 게다가 근대엔 전통적인 공동체 의식이 무너지면서 장애인을 놀림의 대상으로 삼았다. 물론 조선시대에도 장애인을 놀리기도 했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해학 수준에 불과했다.<sup>9)</sup> 반면에 근대에 이르러서는 악의적인 감정으로 장애인을 놀릴

6) 조선시대엔 장애인들도 능력과 의지만 있다면 중9품 미관말직에서 정1품 정승에까지 얼마든지 오를 수 있었다. 정창권, 『역사 속 장애인은 어떻게 살았을까?』, 글항아리, 2011, 286~348쪽.

7) 정창권(2016), 앞의 논문, 120~122쪽.

8) 위의 논문, 120쪽.

9) 특히 조선후기에 이르러 장애인 복지정책이 쇠퇴하고 그들의 사회적 지위가 하락하자, 심지어 민중들 사이에서조차 장애인을 비하하고 무시했다. 그 단적인 예를 민중문학의 백미라 할 수 있는 판소리와 민속극에서 찾아볼 수 있다(정창권(2005), 앞의 책, 186쪽. 박희병, 『병신에의 시선』, 『고전문학연구』 24, 한국고전문학회, 2003, 309~361쪽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 장애인은 누구든지 사회에서 멀리 이 탈하는 법 없이 비장애인과 더불어 동고동락하며 살아갔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직접적으로 확대하고 배제하기까지 했다. 그리하여 당시 장애인들은 자신의 장애를 비관하며 극단적으로 자살을 선택하기도 했던 것이다.

더 나아가 일제강점기에는 근대화·산업화로 기존 장애인의 직업도 급속히 사라져갔다. 이에 따라 많은 장애인들이 무직자나 걸인으로 전락했고, 심지어 생계형 범죄자로 빠져들기도 했다. 예컨대 시각장애인은 원래 점복과 독경을 하는 판수로 살아갔으나, 근대에 이르러 미신이라 탄압을 받으면서 직업을 잃고 점점 실업자가 되어갔다. 그 대신 일제가 제생원 맹아부를 설립하여 안마업이란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주기도 했지만, 당시 시각장애인의 2/3 가량이 무직자로 전락했다. 마찬가지로 청각·언어 장애인의 직업도 1921년엔 농업이 가장 많았으나 1927년엔 무직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그 결과 특히 언어장애인의 경우는 절도나 소매치기, 강도 같은 생계형 범죄를 많이 저지르기도 했다.<sup>10)</sup>

이와 같이 세상 그 어디에도 발 디딜 곳 없는 비참한 현실 속에서 근대의 장애인들은 그나마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이 덜한 문학이나 미술, 음악 등 예술계로 진출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한편 사회적 자아를 실현코자 했던 것이다. 근대 장애예술가들이 출현한 배경에는 이처럼 암울한 시대 현실이 자리 잡고 있었다.

## 2) 근대 장애예술가의 분야별 고찰

### (1) 작가

우선 근대의 장애 작가로는 중복장애 동요작가 서덕출, 한국 최초의 본격 시나리오 작가 최금동, 아동문학의 첫세대 작가 권오순, 한센병 시인

10) 정창권(2016), 앞의 논문, 124~132쪽.

한하운 등이 있었다. 이들 작가는 조선시대에 비해 그 수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동요나 동시, 시나리오, 현대시 등 다양한 문학 장르에서 뛰어난 작품들을 많이 남겼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가급적 활동 시기별로 차근 차근 살펴보되, 그들의 생애와 업적을 개괄적으로 설명한 후 역사적 의의를 지적하는 형식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앞서서처럼 본고는 초창기 연구단계에서 근대 장애인예술가의 존재를 최대한 많이 발굴하여 소개하는 데에 주요한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 ① 중복장애 동요작가, 서덕출

서덕출(1906~1940)은 일제강점기 아동문학가이자 약사였다. 경남 울산에서 출생했다. 6살 때 마루 위에서 장난하다가 떨어져 한쪽 다리를 다쳤는데, 온갖 약을 다 써보았으나 낫지 않고 결국 ‘앉은뱅이’에 ‘곱추’가 되고 말았다고 한다. 즉, 지체장애에 척추장애까지 가진 중복장애인이 되었던 것이다. 이후 그는 집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방안에만 갇혀 지냈으며, 독학으로 글을 깨쳐 노래를 짓는데 재미를 붙이게 되었다.<sup>11)</sup>

서덕출은 1925년 4월 천도교에서 방정환의 주관으로 발행하던 잡지 『어린이』에 동요 <봄편지>가 1등으로 뽑히면서 문단에 데뷔했다. 이 작품은 버들잎에 우표를 붙여 강남으로 보내면 작년에 갔던 제비가 봄을 찾아 다시 온다는 기막힌 시적 구성을 하고 있다. 조선의 독립을 봄과 제비로 표현함으로써 억압당하고 있는 우리 민족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주었던 것이다. 그 전문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연못가에 새로 핀

11) 신현득, 「봄편지의 시인 서덕출」, 『한국아동문학연구』 20호, 한국아동문학학회, 2011, 19쪽. 김지은, 「서덕출의 삶과 동시」, 『지역문화연구』 3, 경남부산지역문화회, 1998, 30쪽.

머들았을 따서요  
우표 한 장 붙여서  
강남으로 보내면  
작년에 간 제비가  
푸른 편지 보고요  
대한 봄이 그리워  
다시 찾아옵니다.<sup>12)</sup>

또한 이 시는 우리나라 최초의 동요작곡가 윤극영이 곡을 덧붙여 이듬해인 1926년 『어린이』 4월호에 게재함으로써 전국의 어린이들이 노래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광복 후 이 시는 초등학교 국어교과서에 수록되었고, 윤극영의 곡 <봄편지>는 음악교과서에 실리게 되었다.

이후 서덕출은 방정환, 윤석중 등과 교류하며 70여편의 동요를 발표했다. 그의 초기 시는 맑고 고운 선율로 동심을 그대로 드러낸 참신함을 보였지만, 후기로 가면서 차츰 감상적인 경향을 띠게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sup>13)</sup>

서덕출은 28세인 1934년 부모님이 정해준 전필남이란 여인과 결혼하고, 울산 북정동으로 이사하여 약방을 운영하며 지냈다. 당시 그는 가계를 꾸리기 위해 약사 시험을 보아 합격했고, ‘애생당(愛生堂)’이란 신약방을 운영했다고 한다. 하지만 슬하에 남매를 두고, 34세인 1940년 2월 척추병의 재발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가풍에 따라 불교식으로 화장을 해서 묘지는 현재 남아 있지 않다.

작품집으로는 작고한 지 11년 후에 발간된 유고시집 『봄편지』(자유민보사, 1951)가 있다. 또 1968년 새싹회가 울산시 학생공원에 그의 대표작

12) 서덕출, <봄편지>, 『아동문학선집』 2, 어문각, 1980, 228쪽.

13) 신현득, 앞의 논문, 74~76쪽.



인 <봄편지>를 새긴 ‘서덕출 노래비’를 세우기도 했다.<sup>14)</sup>

## ② 한국 최초의 본격 시나리오 작가, 최금동

최금동(1916~1995)은 일제강점기와 해방 후의 시나리오 작가이자 기자였다. 전남 함평에서 태어났으나, 7살 때 완도 근처의 신지도로 옮겨 가서 어렵게 보통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오른쪽 눈이 실명이었고 왼쪽 눈마저 백내장에 걸려 잘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보기에도 매우 흉했다. 그래서 학교에 다닐 때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항상 위축된 생활을 해야 했다. 이후 18살 때 서울로 올라가 신문배달을 하며 공부하여 중앙불교전문학교(현 동국대학교)에 들어갔다. 미당 서정주와 함께 학교에 다니던 그는 『조선중앙일보』에 처녀작 <누나>를 투고하여 가작으로 뽑히고, 『동아일보』에 시조 <고성>이 가작으로 뽑히기도 했다.

21살인 1936년, 마침내 최금동은 『동아일보』 제1회 시나리오 현상모집에 <환무곡(幻舞曲)>이 당선되어 시나리오 작가로서의 첫발을 내딛게 된다. 이 작품은 <메밀꽃 필 무렵>으로 유명한 이효석이 <애련송(愛戀頌)>이라는 제목의 소설로도 각색하여 『동아일보』에 연재했고, 1939년 김유영 감독이 영화로 제작하여 단성사에서 개봉하기도 했다.

그런데 1937년부터는 일제의 지시 아래 민간영화 제작사들이 거의 문을 닫는 바람에 더 이상 활동무대를 찾기가 어려웠다. 이에 그는 조선총독부의 기관지인 『매일신보』에 입사하여 사회부 기자로 생활하며 영화소설 <해빙기> 등을 쓰기도 했다.

해방 후에도 그는 기자생활을 계속했는데, 1947년까지는 매일신보의 후신인 『서울신문』 사회부장으로, 1949년까지는 『독립신문』 편집국장,

14) 김지은, 앞의 논문, 32~33쪽.

1951년까지는 『한성일보』 편집국장으로서 근무했다. 그리고 6·25 전쟁을 피해 광주로 내려가 1957년까지 전남대 출판국장을 지내기도 했다. 하지만 1957년 이후로는 작품 활동에만 전념하면서 많은 시나리오를 창작했다. 탈고된 작품이 100여편에 이르고 그 가운데 영화로 만들어진 것도 50여편에 육박했으나, 국내 최초의 본격 시나리오 작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의 작품세계는 거의 대부분 역사적 인물과 사건을 중심으로 불교사상이나 독자적인 민족의식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대표적인 예로 <아, 백범 김구선생>(1960), <성웅 이순신>(1971), <의사 안중근>(1972), <유관순>(1974) 등과 <이름 없는 별들>(1954), <3·1 독립운동>, <8·15 전야>(1958), <동학란>(1966) 등을 들 수 있다. 작품집으로는 『최금동 시나리오 문학선집』(전2권)이 전한다.<sup>15)</sup>

### ③ 아동문학의 첫 세대 작가, 권오순

권오순(1919~1995)은 일제강점기와 현대의 여성 아동문학가였다. 황해도 해주에서 출생했는데, 3살 때 소아마비를 앓은 후 지체장애인이 되었다. 그 어머니의 증언에 의하면, 어릴 적엔 건강했으나 3살 무렵 고추밭에서 놀다가 갑자기 고열을 앓은 후 지체장애를 입게 되었다고 한다. 이후 그녀는 일체 바깥출입을 하지 않았고, 외고집 괴팍쟁이가 되어 갔다. 학교도 다니지 않았는데, 대신 앞의 서덕출처럼 집에서 어린이 잡지를 읽으며 독학했다.<sup>16)</sup>

15) 김정민 정리, 『신체적 장애 딛고 <아, 백범 김구 선생> 등을 쓴 한국 최초의 본격적인 시나리오 작가』, 『씨네21』 2002년 1월호 참조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강옥희 외 지음, 『식민지 시대 대중예술인 사진』, 소도, 2006, 334~335쪽.

16) 전병호, 『구슬비에 담은 이슬 같은 생애』, 『아동문학평론』 33, 아동문학평론사, 2008, 34~35쪽.

권오순은 13살 때 처음으로 동시 <하늘과 바다>를 써서 평소 구독하던 잡지인 『어린이』 1933년 5월호에 발표함으로써 문단에 데뷔했다. 이후 18살인 1936년 <구슬비> 등 여러 편의 동시를 써서 아동문에 잡지에 투고했는데, 일제의 민족문화 말살정책에 따라 잡지사들이 폐간되면서 발표되지 못했다. 그런데 이듬해 만주 용정에서 발간되던 『가톨릭 소년』 5월호에 아래와 같은 <구슬비>가 실리게 되었다.

송알송알 싸리잎에 은구슬  
 조롱조롱 거미줄에 옥구슬  
 대롱대롱 풀잎마다 총총  
 방긋 웃는 꽃잎마다 송송송

고이고이 오색실에 껴어서  
 달빛 새는 창문가에 두라고  
 포슬포슬 구슬비는 종일  
 예쁜 구슬 맺히면서 솔솔솔<sup>17)</sup>

이 작품은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살려 쓴 대표작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특히 ‘송알송알’, ‘총총’, ‘송송송’, ‘포슬포슬’, ‘솔솔솔’ 등과 같은 흥내 말을 잘 살려 써서 성공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sup>18)</sup> 이 작품 역시 해방 후인 1948년 안병원이 곡을 붙여 동요로 만들었다. 그래서 동시는 초등학교 국어책에, 동요는 음악책에 각각 실리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권오순은 자신의 작품이 남한의 국어책과 음악책에 동시에 실려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서, 1948년 11월 작은 조각배를 타고 황해도 바다를 건

17) 권오순, <구슬비>, 『아동문학평론』 33, 아동문학평론사, 2008, 26쪽.

18) 전병호, 앞의 논문, 39~43쪽.

너 월남했다. 그리고는 이화여대 뒤편에 있는 언니집에 얹혀살며 샴바느질로 살림을 도왔다. 6·25 때에도 그녀는 장애를 가진 몸이라 피난을 가지 못해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겨야 했다. 또 전쟁 후 1952년에는 가톨릭에 귀의하고 천주교회에서 세운 고아원(성모원)에서 보모로 일하며 평생을 독신으로 살아갔다.

마침내 1979년 2월, 권오순은 충북 제천군 백운면 천주교회 옆의 오두막에 거처하면서 활발한 작품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첫 동시집인 『구슬비』(1983)를 비롯해서 『새벽 숲 멧새소리』(1984), 『무지개 꿈밭』(1987) 등을 연달아 발간했다. 또 1980년에는 수원의 노인요양병원인 ‘평화의 모후원’에 들어가 『가을 호수길』(1990)을 펴내기도 했다. 그밖에도 수기·동요·동시집인 『꽃숲 속 오두막집』(1987), 글 모음집 『조각달처럼』(1990)을 남겼다. 1995년 11월 11일 타계하여 경기도 안성의 미리내 성지에 묻혔다.<sup>19)</sup>

#### ④ 한센병 시인, 한하운

한하운(1919~1975)은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의 시인이자 사회사업가, 출판인이었다. 본명은 한태영, 호는 하운(何雲)이었다. 함경남도 함주에서 태어난 그는 8살인 1926년 함흥으로 이사해서 함흥보통학교에 들어갔고, 14살인 1932년 이리농림학교에 들어가 축산과를 공부하는 동시에 평소 좋아하는 시와 소설을 습작했다.<sup>20)</sup>

그가 한센병에 걸린 것은 13살 때였다. 그해 봄에 까닭도 없이 몸이 무

19) 전병호, 앞의 논문, 37~38쪽.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학중앙연구원. 『구슬비 권오순 선생, 편지가 맺어준 인연』, 『오마이뉴스』 2012년 5월 21일자.

20) 성기조, 「나는 문둥이가 아니올시다」, 『한국어문교육』 3, 한국교원대 한국어문교육연구소, 1993, 9쪽.

겹고 얼굴이 부어오르기 시작했다. 또 이리농림학교 5학년 때에는 이상하게도 팔 다리의 심한 통증과 함께 몸 전체에 콩알 같은 피부결절이 생기고 나중에는 그것이 터져서 흠집이 생겼다. 즉시 경성제대 부속병원으로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 ‘한센병’이라 했다. 다행히 금강산에 들어가 한센병 치료제인 대풍자유 주사를 맞아 병세는 호전되었고, 더 이상 몸에 이상이 생기지 않았다. 그리하여 이리농림학교를 졸업하고, 19살인 1937년 일본으로 건너가 동경의 성계고등학교에 입학했다.<sup>21)</sup> 또 1941년엔 중국 북경대학 농학원 축산학과에 입학하여 2년 동안 수학했다. 그리고는 귀국하여 함경남도 도청의 축산과에서 근무했다.

그런데 1944년 그의 몸에 또다시 이상한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겹은 눈썹이 차츰 줄어들고, 피부 결절은 팔과 다리, 얼굴 할 것 없이 나날이 눈에 띄게 퍼져갔다. 게다가 이때는 태평양 전쟁의 막바지라서 약조차 구하기가 힘들었다. 결국 그는 회사에 사표를 내고 고향으로 돌아가 본격적인 한센인 생활을 해야 했다.<sup>22)</sup>

1945년 마침내 광복이 되었지만 그의 전 재산은 공산당에 몰수당하고 말았다. 이에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아우와 함께 현책방을 운영했다. 하지만 1947년 어머니마저 돌아가시자, 그는 죽음을 무릎 쓰고 월남하여 유리결식하며 살았다. 한센인으로서 갖은 학대와 내쫓김을 당하면서 문전결식을 하거나 다리 밑에서 잠을 자곤 했다. 이때 그는 무너져가는 육체와 정신적 고통을 이기기 위해 <전라도 길> 외 13편의 시를 써서 잡지 『신천지』 1949년 4월호에 발표하고, 그 해 5월엔 첫 시집 『한하운시초』를 정음사에서 출판하기도 했다.

1950년대 이후로 한하운은 본격적인 나병운동을 전개했다. 1950년 부

21) 김창직 편저, 『가도가도 황돛길』, 지문사, 1982, 91~95쪽.

22) 성기조, 앞의 논문, 11쪽.

평에 한센인 정착촌인 ‘성계원’을 건설하여 자치회장에 선출되고, 1951년엔 영등포에 미감아 보육기관인 신명보육원을 창설하고 원장으로 취임했다. 또 1960년엔 평생을 괴롭히던 한센병이 드디어 음성으로 판명되자 사회에 복귀하여 ‘무하문화사’란 출판사를 설립하고, 자작시 해설집 『황톳길』을 신흥문화사에서 출판하기도 했다. 결국 1976년 2월 28일, 한하운은 인천시 십정동 자택에서 5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sup>23)</sup>

## (2) 화가

근대의 장애 화가로는 우리나라 최초의 야수파 화가 구본웅, 근대의 대표화가 김기창, 내시화가 이병직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전통적인 동양화를 그리기도 했지만, 근대에 새로 들어온 서양화에 도전하여 명작을 남기기도 했다. 또 이들은 화가로서 유명해진 뒤로는 문단이나 장애인, 교육 등의 분야에서 자선사업을 벌이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이들의 생애와 업적 및 역사적 의의에 대해 일종의 ‘평전’ 형식으로 차례대로 살펴보자.

### ① 야수파 화가, 구본웅

구본웅(1906~1953)은 일제강점기와 6·25 동란기에 서양화가이자 조각가, 미술평론가로 활동했다. 지금까지는 천재작가 이상의 절친한 친구이자 그의 초상화를 그려준 인물로 많이 알려져 왔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야수파 화가로서 새롭게 조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구본웅의 조부는 일찍이 일본 유학을 다녀왔고, 아버지는 ‘창문사(彰文社)’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인쇄소를 경영하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렇게 부유하고 개화한 집안에서 태어났음에도 그는 일찍이 불행한 운명을 겪

23) 위의 논문, 12~18쪽.

어야 했다. 2살이 되던 해에 어머니를 여의고, 그를 돌봐주던 가정부의 부주의로 마루에서 떨어져 ‘곱추’, 즉 척추장애인이 되었던 것이다. 또 척추 장애로 인해 16살인 1921년 신명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경기중학교에 들어가려 했으나 입학할 거부당하였다. 다행히 외국인 선교사가 운영하는 경신중학교에 들어갔는데, 쿤스 교장선생님이 그의 그림에 대한 소질을 발견하고서 카메라까지 선물하며 적극적으로 격려했다.

이후 그는 그 학교의 미술반에서 미술에 대한 기초를 쌓는 한편, 을지로 1가에 있는 고려미술원을 다니며 서양화가 이종우에게 전문적인 그림 지도를 받기 시작했다. 또 이종우가 파리 유학을 떠난 뒤에는 서울 YMCA의 미술과에 다니며 동경미술학교 출신의 조각가 김복진에게 조각기법을 배웠다. 그리하여 1927년 제6회 조선미술전람회 조각부에 <일 굴 습작>을 출품해 일약 특선에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신체장애로 인해 조각가의 길은 포기하고 서양화에만 주력해야 했다.<sup>24)</sup>

이듬해 구본웅은 더욱 본격적인 미술 공부를 위해 일본 유학을 단행했다. 가와바타(川端) 미술학교에서 1년간 대생 훈련을 하고, 일본대학 전문부 미술과에서 1년 정도 미술 이론을 공부하였다. 그와 함께 작품 활동도 계속하여 태평양회화연구소가 주최하는 콩쿠르에서 두 번씩이나 입상하기도 했다. 때마침 태평양회화연구소가 태평양미술학교로 승격하자, 그는 28세인 1933년에 이 학교의 본과를 졸업하고 1934년엔 연구과까지 수료한 뒤 서울로 돌아왔다.

일본에서 주로 야수파적인 회화를 공부한 구본웅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강렬한 색채와 파격적 구도의 야수주의를 도입했다. 또한 그는 귀국 후 서양화가 단체인 목일회(牧日會), 백만회(白蠻會) 등을 조직하고 미술비평에도 힘을 쏟았다. 그와 함께 고미술에 심취하여 1934년 10월 서울

24) 조용훈, 『요절』, 효형출판, 2002, 270~275쪽.

소공동 대로변의 3층 건물에 ‘우고당(友古堂)’이란 골동품상을 열고 직접 운영하기도 했다.<sup>25)</sup> 하지만 1937년 중일전쟁 이후에는 ‘화필보국(畫筆報國: 붓으로 나라를 위해 보답하다)’하자고 주장하면서 이른바 친일행위를 하기도 했다.

1945년 광복 후 구본응은 미군정청 문교부 편수국에서 미술교과서를 편찬했다. 그리고 1950년 6·25 전쟁 때에는 마산, 부산 등지로 피난을 다니며 국방부의 요청으로 종군전람회, 가두전람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신문사 일로 서울로 올라와 둘째아들과 함께 생활하던 도중, 47세에 누하동 자택에서 급성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다. 유고 작품집으로 1974년 시화집 『허둔기(虛屯記)』가 발간되었는데, 이는 6·25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인 1947년에 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sup>26)</sup>

## ② 근대의 대표화가, 김기창

김기창(1914~2001)은 일제강점기와 현대의 한국화가였다. 호는 운포, 운보였다. 7살 때까지만 해도 그는 또래 아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평범한 소년이었다. 하지만 승동보통학교에 입학한 지 이틀 후에 열린 소풍 겸 운동회에서 장티푸스에 걸린 이후 그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졌다. 할머니가 그의 병세를 걱정하여 달여준 인삼을 마시고 심한 고열이 나면서 며칠 동안 혼수상태에 빠져 들었다가 결국 청력을 잃어버렸던 것이다. 이후로 그는 후천적 청각장애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다.<sup>27)</sup>

승동보통학교를 졸업한 뒤 17세의 김기창은 어머니의 권유로 이당 김

25)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석주, 『이상과 모던 뿌이들』, 현암사, 2011, 315쪽. 조용훈, 앞의 책, 276~286쪽.

26)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조용훈, 앞의 책, 287~292쪽. 『허둔기』, 한국근대미술연구회, 1974.

27) 최병식, 『천연기념물이 된 바보』, 동문선, 1999, 21~22쪽.



은호의 문하에 들어가 그림에 대한 가르침을 받게 되었다. 김은호(1892~1979)는 동양화가, 특히 초상화의 대가로 화조와 산수 등 모든 분야의 그림에 뛰어났으며, 고종과 순종의 어진을 그린 적도 있었다. 그는 당시 화가들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사람이었다.

김기창은 그의 문하에 들어간 지 6개월만인 1931년 제10회 조선미술전람회에 <판상도무(널뛰기)>를 출품하여 입선했다. 그리고 이때 어머니로부터 운포(雲圃)라는 아호를 받게 되었다. 이듬해에도 그는 창경궁의 펠리칸 한 쌍을 그린 <수조(水鳥)>를 출품하여 두 번째로 입선했다. 하지만 바로 그해 어머니가 산후 부황과 심장마비, 뇌일혈이 겹쳐 38살의 젊은 나이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았는데, 그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더욱 열심히 작품에 몰두했다. 그래서인지 이후로도 계속 선전에 입선하다가 24세 때인 제16회 선전에서는 할머니의 옛이야기를 듣는 아이들의 모습을 그린 <고담(古談)>을 출품하여 최고상인 창덕궁상 겸 특선을 받았다. 그는 1938년부터 1940년까지 연달아 선전에서 특선을 받고 1941년부터는 대망의 추천작가가 되는데, 그때 나이는 불과 27세였다. 하지만 이후 그는 일제의 강요에 의해 ‘반도총후미술전’, ‘조선남화연맹전’, ‘애국백인일수전람회’ 등 친일미술전에 일제의 군국주의를 찬양하는 작품들을 출품했다. 또 『매일신보』에 일제의 강제징집을 고무하는 시화 연재물 <님의 부르심을 받고>의 삽화를 그리기도 했다. 그도 역시 일제 말기에 친일활동을 했던 것이다.<sup>28)</sup>

6.25 전쟁이 끝난 1950년대 운보는 본격적으로 그림 작업에 몰두했는데, 그 경향은 크게 성화(聖畵) 시리즈와 반추상화 작업으로 나뉘었다. 우선 그는 예수에게 바지저고리와 두루마기를 입히고 머리에는 갓을 씌운 ‘예수의 생애’를 총 30여점으로 완성했다. 또한 전쟁 뒤의 폐허 속에서도

28) 위의 책, 52~102쪽.

꾸밈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화폭에 옮겼는데, 이것들은 굵은 직선으로 입체파적으로 표현했다. 대표적으로 <복덕방>, <노점>, <홍낙도> 등이 그것이었다.

1960년대 중반 이후 그는 완전한 추상화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아내 박래현과 함께 미국 뉴욕에 머물며 세계 현대미술을 접하면서 그러한 경향은 더욱 두드러졌다. 그 대표적인 작품으로 <태양을 먹은 새>를 들 수 있다. 그런데 7년여 동안 미국에서 판화작업을 하던 박래현이 과로로 인해 병(간암)을 얻게 되었고, 1976년 1월 57세의 나이로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운보는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불같은 열정으로 그림 작업에 몰두했다. 불과 2개월 만에 <옛장수>, <일장>, <비오는 날>, <십장생>, <바보화조>, <바보 수렵도> 등 80여 점을 완성했는데, 이것들이 바로 그 유명한 바보산수, 바보화풍이었다. 또한 1973년부터는 세종대왕, 김정호, 을지문덕 등 역사 속 위인들의 영정 제작에도 많이 참여했다.<sup>29)</sup>

운보는 말년에 농아들을 위한 복지사업도 활발하게 펼쳤는데, 1979년 한국농아복지회를 창설하여 초대회장에 취임했고, 1984년에는 서울 역삼동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센터인 청음회관을 설립했다. 또 아내를 잃은 뒤 어머니의 고향인 충북 청원군에 2만 5천평의 산을 매입하여 ‘운보의 집’을 지은 뒤 2001년 88세의 나이로 타계할 때까지 그곳에서 여생을 보냈다.<sup>30)</sup>

### ③ 내시 출신의 화가, 이병직

이병직(1896~1973)은 일제감점기와 광복 후의 서화가이자 수장가였

29) 위의 책, 161~299쪽.

30) 위의 책, 299~339쪽.

다. 강원도 홍천에서 태어났는데, 7살인 1903년 사고로 남자의 성기를 잃은 뒤 7000석꾼의 내시 집안에 양자로 들어갔다. 하지만 그가 내시로 활동한 기간은 양자로 들어간 1903년 이후부터 내시제도가 폐지된 1908년까지의 짧은 기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그는 19살인 1915년부터 당대의 유명한 서화가인 김규진의 ‘서화 연구회’에 들어가 그림과 서예를 배웠다. 또 27세인 1923년에는 고려미술회의 회원으로 참여하며 사람들에게 동양화 분야를 지도하기도 했다. 이 해부터는 조선미술전람회에 작품도 출품하여 1931년까지 8차례의 전람회에서 모두 12회나 입선하는 등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광복 후에도 그는 대한민국미술전람회에 입선했으며, 1953년 국선 추천작가, 1956년 국선 초대작가, 1957~1959년 국선 심사위원을 역임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김규진의 큰 글씨를 본받아 곳곳에 많은 현판을 남겼다. 그림 또한 김규진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사군자 중에서도 난초와 대나무를 잘 그렸다.

한편, 이병직은 부유한 내시의 양자가 되어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았을 뿐 아니라 서화 감식안이 뛰어난 것으로도 유명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굴지의 서화 수장가 가운데 한 사람이기도 했다. 실제로 그는 자신의 방대한 수장품을 1937년과 1941년 경성미술구락부의 경매회에서 처분했고, 1950년 한국고미술협회에서 또 한번의 경매회를 치러 중요한 전적류를 처분했다. 그가 이토록 많은 수장품을 경매로 처분한 이유는 선산이 있는 경기도 양주의 효촌초등학교와 양주중학교 등에 기부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까지 이병직은 내시 출신이라는 사실 때문에 별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제강점기 조선미술전람회에 12회나 입선한 서화가이자 대수장가 및 자선사업가였다.<sup>31)</sup>

### (3) 음악가

시각장애인들은 소리에 민감한 재능을 살려 고대로부터 악사로 많이 활동했다. 또 조선시대엔 시각장애인 가운데 음악적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을 뽑아 장악원에서 관악기와 현악기를 연주하는 관현맹인 제도가 있어서 대대로 많은 시각장애인 음악가들이 출현했다.<sup>32)</sup> 하지만 근대엔 관현맹인 제도가 폐지되어 그들의 음악적 전통이 단절되고 말았다. 그럼에도 당시 시각장애인들은 박유전처럼 판소리 명창으로서, 유동초와 편재준, 정해시 등처럼 국악 연주자로서 폭넓은 활약상을 펼쳤다. 다만 그들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 편인데, 본고에서는 신문이나 음반자료 등을 최대한 모아서 그들의 생애와 예술적 성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① 서편조 소리의 시조, 박유전

박유전(1835~1906)은 한말의 판소리 명창이었다. 그는 어려서 왼쪽 눈을 다쳐 ‘애꾸’가 되었는데, 이 때문에 당시 여타 장애인들처럼 집밖에서는 놀림을 받고 집안에서는 천덕꾸러기로 자랐다. 하지만 목청이 워낙 좋아서 타고난 명창의 소리인 ‘천구성(天口聲)’을 지녔다는 평을 들었다.

이후 그는 전주 대시습놀이에서 명성을 얻어 중앙으로 진출하였고, 본격적으로 명창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특히 판소리를 유난히 좋아하던 흥선대원군의 총애를 얻어 선달(先達)이란 벼슬을 제수받았을 뿐 아니라, 선글라스처럼 검은 안경인 오수경과 추위를 막기 위해 팔뚝에 끼는 금토시를 하사받기도 했다.

박유전은 특히 판소리 선율 중 세 마치 장단과 기타 여러 장단을 조합

31)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김상엽, 『미술품 컬렉터들』, 돌베개, 2015, 249~273쪽.

32) 정창권(2011), 앞의 논문, 445~446쪽.

하여 정연하면서도 변화 있는 새로운 양식을 개발하고서, 이를 ‘강산제(江山制)’라 불렀다. 강산제 소리는 섬진강 서쪽의 광주, 나주, 보성 등지에서 많이 불렸고, 주로 계면조의 맑고도 높으며 아름답고도 슬픈 기운을 띤 서편제 소리의 뿌리가 되었다. 즉, 박유전이 서편제 소리의 시조가 되었던 것이다.

이후 홍선대원군이 실각하자 고향으로 돌아온 박유전은 전남 나주와 보성을 오가며 제자를 양성하는데 진력했다. 그의 제자로 이날치와 정재근이 있었는데, 특히 이날치가 그의 소리를 계승하여 뛰어난 명창이 되었다. 박유전은 슬하에 일점혈육을 남기지 못한 채 1906년 71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sup>33)</sup>

## ② 통소 명인(1), 유동초

유동초(1887~1946)는 일제강점기 국악연주자였다. 전남 장성군 북상면에서 태어났는데, 선천적이거나 아주 어릴 적에 시력을 잃었다. 본명은 유봉(柳奉)이었으나, 통소로 이름을 날려 당시 이왕직아악부에서 “동쪽에서 이런 명인은 처음 났다.”라고 하며 동초(東初)란 호를 지어주었다 한다.

그는 통소뿐 아니라 가야금, 단소, 젓대, 세피리에도 능하였다. 주요 연주곡은 영산회상, 가곡반주, 가곡창 등 풍류와 시나위(산조), 봉장취 등과 같은 민속악이었다. 특히 그의 통소 산조와 봉장취는 그야말로 전무후무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유동초의 음악은 1930년대 녹음한 유성기음반자료<sup>34)</sup>가 유일하게 남아 있을 뿐이다. 또 그의 통소 산조도 고이곤, 한범수 등의 제자들에게 이어

33) 민족문화보존진흥회, 『국가와 민족을 빛낸 호남 출신 인물』, 민족문화보존진흥추진위원회, 2009, 430~435쪽. 서권식, 『남도 인물과 문화』, 홍익기획, 2005, 438~459쪽.

34) “대금·통소·풀타리의 명인”, 지구레코드, 1994, 복각제작.

졌으나, 지금은 그 가락마저 사라지고 없는 실정이다.<sup>35)</sup>

### ③ 통소 명인(2), 편재준

편재준(1914~1979)도 일제강점기 국악연주자였다. 유동초의 제자이자 그와 더불어 통소 명인이라는 칭송을 받았다. 전북 고창 출신으로, 본명은 옥석(玉石)이었다.

편재준은 3살 때 홍역으로 눈병을 앓았는데, 약을 잘못 써서 완전히 실명하여 맹인이 되었다고 한다. 그후 마을에 살던 당골이 그를 데려갔고, 처음으로 피리를 배우기 시작했다. 또 위의 유동초에게 젓대를 배우고, 전 흥련에게는 대금, 통소, 단소를 배우기도 했다. 그리하여 단소, 젓대, 가야금, 양금 등의 악기에 모두 능통했고, 특히 젓대를 뛰어난게 잘 불었다. 주로 남원에서 활동했고, 말년에는 대전에서 살기도 했다. 안타깝게도 그의 음원은 지금까지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sup>36)</sup>

### ④ 통소 명인(3), 정해시

정해시(1930년대) 역시 일제강점기 국악연주자였다. 그에 관한 기록은 거의 남아 있지 않고, 다만 그가 남긴 유성기 음반들을 통해 음악세계를 대강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일제강점기에 그가 연주한 <봉장취>, <새타령>이 일본 콜롬비아 음반에 전하고, 김덕진·김매홍·김덕준·이소향 등과 함께 연주한 <가난 타령>, <고당상(高堂上)>, <고산염불>을 포함한 10여곡의 노래가 일본

35) 조석연, 「통소의 명인 유동초 생애에 관한 재검토」, 『한국음악사학보』 45, 한국음악사학회, 2010, 373~380쪽.

36) 위의 논문, 385~386쪽. 이보형, 「통소 명인 편재준의 생애와 예술」, 『한국악기학』 2, 한국통소연구회, 2004, 7~14쪽.

빅타 음반에 전하며, 오태석·정남희·조앵무 등과 함께 연주한 <까투리 타령>, <남도잡가>, <농부가>, <매화타령>, <문경새재>, <성주푸리>가 일본 폴리돌 음반에 전하고 있다. 또 1935년부터 1941년에 김덕진·조금옥과 함께 경성방송국에 출연하여 경기가요, <봉장취>, 산조, 속곡, 시조 등을 연주하기도 했다.

주요 음악은 시나위, 산조, 봉장취 등이었으며, 특히 그가 맡은 부분은 통소와 대금이었다. 특히 정해시가 것처럼 많은 음반작업에 참여했던 것은 당시 통소 명인으로 꼽혔을 뿐 아니라 그 실력이 유동초와도 버금갔기 때문이라고 한다.<sup>37)</sup>

#### ⑤ 바이올린 음악의 선구자, 안병소

안병소(1910~1979)는 일제강점기와 광복 후의 바이올린 전문 연주자였다. 그도 역시 어렸을 때 지체장애를 입었다. 2살 무렵에 몸이 많이 아팠다가 겨우 살아났는데, 웬일인지 오른쪽 다리에 힘을 쓸 수가 없었다. 충독부의원에 가서 진찰해보니, 척수마비증으로 나중에 심한 절름발이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안병소는 8~9살 무렵부터 음악에 특별한 관심과 재능을 보이기 시작했다. 학교에서는 다른 과목보다 창가(唱歌)를 제일 좋아했고, 집에서 아버지가 구해다 준 풍금과 바이올린을 혼자서 금새 익히곤 했다.<sup>38)</sup> 이후 아버지가 광산일을 하러 황해도 평산으로 가족들을 데리고 갔는데, 때마침 그곳에는 동경음악학교에 다니던 최호영이 방학을 맞아 귀국해 있었다. 아버지는 그를 데리고 최호영을 찾아가 비로소 정식으로 바

37) “대금·통소·폴터리의 명인”, 지구레코드, 1994. 송방송, 『한겨레음악대사전』, 보고서, 2012, 820쪽.

38) 『가여운 병신 몸으로 바이올린의 대천재』, 『어린이』 1926년 10월호(통권44호) 18~25쪽.

이올린을 배우도록 해주었다. 이후에도 아버지는 조선일보사의 초청으로 내한해있는 독일의 바이올리니스트 요셉 후스에게 데려가 주1회씩 본격적인 바이올린 연주법을 배우도록 해주었다. 그리하여 4년 뒤 안병소는 천재적인 연주자로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되었고, 1927년엔 17살의 어린 나이로 첫 독주회를 갖기도 했다.

1934년 안병소는 그토록 열망하던 독일 유학길에 올랐다. 그리하여 처음 2년간은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빌리 헤스에게 개인 교습을 받다가, 이후 베를린 국립음악대학에 입학하여 2년만에 졸업했다. 또한 그는 바이올린 제작자 아르민 노이만에게 바이올린 제작기술을 배워 직접 바이올린을 제작하기도 했다.

이전에 안병소는 숙명여고를 졸업한 피아니스트 이애내와 함께 독일 유학을 떠났는데, 1938년 귀국한 뒤에는 주변 사람들의 권유에 따라 그녀와 결혼했다. 이후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할 즈음, 만주 신경교향악단의 부지휘자가 그를 찾아와 최고의 대우를 약속하며 악장 겸 독주자로 일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그는 다시 만주 신경으로 가서 1941년까지 오케스트라 활동을 했다.

1941년 안병소가 고국으로 돌아오자 여러 대학에서 강의를 맡아달라고 했다. 하지만 연주자는 연주 기법을 익히는 데에만 전념해야 한다는 평소의 소신에 따라, 그는 아내와 함께 연악원(研樂院)이라는 바이올린 교습소를 개설하여 후진양성에 주력했다. 실제로 당시국내에서 활동하는 원로나 중견 바이올린 연주자들은 대부분 연악원 출신이거나 안병소의 제자들이었다고 한다.

그밖에도 안병소는 당시 한국과 일본, 만주를 무대로 350여회의 독주회를 가졌고, ‘안병소 현악4중주단’을 조직하여 활동했으며, <국토 통일의 노래> 등을 작곡하기도 했다. 바이올린 음악의 선구자로서 많은 제자들



을 양성했을 뿐 아니라 서양음악의 보급에도 앞장섰던 것이다. 그는 마지막까지 연악원을 지키다가 1979년 3월 6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장례식은 음악협회장으로 엄수되었다.<sup>39)</sup>

### 3. 맺음말: 근대 장애예술가의 특징과 의의

근대엔 장애인 복지정책이 거의 시행되지 않았고, 그들의 직업도 많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당시 장애인들은 그나마 장애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이 덜한 문학, 미술, 음악 등 예술 분야로 진출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한편 사회적 자이를 실현코자 했다. 그 결과 근대에도 장애예술가가 현재까지 발굴된 인물만 해도 최소 13명 가량이 존재했다. 끝으로 이러한 근대 장애 예술가의 종합적인 특징과 의의를 체계적으로 지적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근대에도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들이 예술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조선시대와 마찬가지로 시각장애인이 가장 많았고, 그 외 지체장애인, 척추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중복장애인 등이 있었으며, 기타 성기능 장애인, 한센인 등도 참여하고 있었다. 또한 그들은 문학에선 동요나 동시, 시나리오, 현대시, 미술에선 동양화와 서양화, 음악에선 국악과 양악 등 다양한 예술 분야에 진출하여 뛰어난 작품들을 많이 남겼다.

둘째, 근대 장애예술가들도 여전히 조선시대처럼 학교 교육보다 독학이나 스승에게 직접 배우는 도제식 교육을 받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작가들 중 서덕출과 권오순은 독학으로 글을 배워 문단에 데뷔했으며, 화가들 중 김기창과 이병직, 음악가들 중 편재준과 안병소 등은 도제식 교육으로

39) 한상우, 『기억하고 싶은 선구자들』, 지식산업사, 2003, 62~67쪽. 송방송, 앞의 책, 503~504쪽.

유명한 예술가가 되었다.

셋째, 그들은 모두 예술을 통해 장애를 뛰어넘고자 했다. 다시 말해 암울한 사회 속에서 예술로 세상과 소통하고 사회적 자아를 실현코자 했던 것이다. 예컨대 작가 서덕출과 권오순, 한하운 등은 무엇보다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 작품을 썼으며, 화가 구본웅이나 김기창, 이병직 등은 그림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자 했다. 또 음악가 박유전이나 유동초, 안병소 등도 음악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고자 했다.

넷째, 근대 장애인의 예술적 업적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특히 그들의 이름 앞에는 유독 ‘최초’나 ‘최고’였다는 수식어가 붙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작가 최금동은 한국 최초의 본격 시나리오 작가였고, 권오순은 아동문학의 첫세대 작가였다. 화가 구본웅은 우리나라 최초의 야수파 화가였고, 김기창은 그야말로 근대의 대표 화가였다. 마찬가지로 음악가 박유전은 서편제 소리의 시조가 되었고, 유동초와 편재준, 정해시는 당시 통소의 명인, 즉 최고의 연주자로 꼽혔으며, 안병소는 바이올린 음악의 선구자란 칭송을 받을 정도였다. 지금까지 우리는 별로 주목하지 못했지만, 그들은 분명 근대 예술사에서 당당히 한 축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섯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 장애예술가들은 작품 활동만으론 생계가 어려워 평소 다른 일을 병행하기도 했다. 특히 남성 가장들의 경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예술 외에 다양한 일들을 해야만 했다. 대표적으로 작가 서덕출은 동요를 쓰면서 약국을 운영했고, 최금동은 한때 시나리오 쓰기를 중단하고 신문사 기자와 대학출판부에서 일해야 했으며, 한하운도 시를 쓰며 출판사와 복지기관을 운영했다. 또 화가 구본웅도 그림과 함께 골동품상과 인쇄소를 운영했으며, 말년에는 신문사 기자생활을 하기도 했다. 음악가 유동초와 안병소도 악기 연주와 함께 음악 교습으로 가족을

부양했다. 이렇게 근대 장애예술가들은 예술과 다른 일들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만큼 당시의 예술 환경이 척박했음을 반증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상과 같이 근대 장애예술가들은 어린 시절에 입은 장애에도 불구하고 피나는 노력으로 문학, 미술, 음악 등 다양한 예술 분야로 진출했으며, 이후 암울한 사회 속에서 예술 활동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사회적 자아를 실현코자 했다. 그리하여 많은 이들이 ‘최초’이자 ‘최고’라는 찬사를 받으며 근대 예술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서양의 유명한 장애예술가만이 아니라 이들 우리나라의 근대 장애예술가도 한번쯤 기억해줬으면 싶다.

참고문헌

- 「가여운 병신 몸으로 바울린의 대천재」, 『어린이』 1926년 10월호(통권44호), 18~25쪽.
- 강옥희 외 지음, 『식민지시대 대중예술인 사전』, 소도, 2006, 1~368쪽.
- 권오순, <구슬비>, 『아동문학평론』 33, 아동문학평론사, 2008, 26쪽.
- 「'구슬비' 권오순 선생, 편지가 맺어준 인연」, 『오마이뉴스』 2012년 5월 21일자.
- 김경민 정리, 「신체적 장애 딛고 <아, 백범 김구 선생> 등을 쓴 한국 최초의 본격적인 시나리오 작가」, 『씨네21』 2002년 1월호.
- 김상엽, 『미술품 컬렉터들』, 돌베개, 2015, 1~328쪽.
- 김지은, 「서덕출의 삶과 동시」, 『지역문화연구』 3, 경남부산지역문화학회, 1998, 27~58쪽.
- 김창직 편저, 『가도가도 황톳길』, 지문사, 1982, 1~392쪽.
- 민족문화보존진흥회, 『국가와 민족을 빛낸 호남 출신 인물』, 민족문화보존진흥추진위원회, 2009, 1~777쪽.
- 박희병, 「병신에의 시선」, 『고전문학연구』 24, 한국고전문학회, 2003, 309~361쪽
- 서권식, 『남도 인물과 문화』, 흥익기획, 2005, 438~459쪽.
- 서덕출, <봄편지>, 『아동문학선집』 2, 어문각, 1980, 228쪽.
- 성기조, 「나는 문둥이가 아니올시다」, 『한국어문교육』 3, 한국교원대 한국어문교육연구소, 1993, 9~21쪽.
- 송방송, 『한겨레음악대사전』, 보고서, 2012, 1~2218쪽.
- 신현득, 「봄편지의 시인 서덕출」, 『한국아동문학연구』 20호, 한국아동문학학회, 2011, 5~23쪽.
- 이보형, 「통소 명인 편재준의 생애와 예술」, 『한국악기학』 2, 한국통소연구회, 2004, 7~14쪽.
- 장석주, 『이상과 모던 뽀이들』, 현암사, 2011, 1~403쪽.
- 전병호, 「구슬비에 담은 이슬 같은 생애」, 『아동문학평론』 33, 아동문학평론사, 2008, 34~35쪽.
- 정창권, 『세상에 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문학동네, 2005, 1~215쪽.
- 정창권, 『역사 속 장애인은 어떻게 살았을까』, 글항아리, 2011, 1~565쪽.
- 정창권, 「조선시대 장애인 예술가의 존재양상」, 『한국학연구』 38, 고려대학교 한국

- 학연구소, 2011, 428~453쪽.
- 정창권, 『신문자료로 보는 일제강점기 장애인 생활상』, 『JKC』 32집, 한국어문한국  
제학술포럼, 2016, 124~125쪽.
- 조석연, 『통소의 명인 유동초 생애에 관한 재검토』, 『한국음악사학보』 45, 한국음  
악사학회, 2010, 373~380쪽.
- 조용훈, 『요절』, 효형출판, 2002, 1~356쪽.
- 최병식, 『천연기념물이 된 바보』, 동문선, 1999, 1~356쪽.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한상우, 『기억하고 싶은 선구자들』, 지식산업사, 2003, 1~404쪽.
- 『허둔기』, 한국근대미술연구회, 1974.

ABSTRACT

The discovery and introduction of modern disabled artists

Jeong, Chang-kwon

There were many people with disabilities among the world-famous artists. Of course, there were many disabled artists in our country. During the Joseon Dynasty, there were appeared many disabled artists, such as writer, painter, musician, and so on, and I found that there were about fifteen disabled artists in modern history. Especially, disabled artists in modern history were often labeled the first or the best modifier. It means that activities of modern disabled artists were pioneering and excellent in those days.

Nevertheless, no one had studied modern disabled artists in earnest. So I found out their background of appearance, the lives of modern disabled artists and social situation in this paper. And I divided the modern disabled artists into writer, painter, musician and other characters, and I have studied them in order. Above all, this study is to the first to attempt to research the modern disabled artists. Therefore, I have progressed discussion in the way that I have outlined and introducing faithfully their lives and achievement, after searching for a lot of the people involved. And then I substituted for conclusion by pointing out a comprehensive features and their meaning of modern disabled artists.

Despite the disorder in childhood, the modern disabled artists entered various pieces of arts, such as literature, painting, music, film, story and so on. And then, through the work of arts in gloomy society, they tried to communicated with the world and turn the social self-realization. Thus we need to remember not only a famous disabled artists in the West but also the modern disabled artists of our country.

**Key Words** the disabled artist, writer, painter, musician

논문투고일 : 2017.03.31

심사완료일 : 2017.05.04

게재확정일 : 2017.05.15